

꿈을 나누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히로 코마츠(일본인, 아바타 마스터)

처음 Mr.박을 만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9월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된 아바타 마스터코스(Avatar Master Course)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회장에는 미국에서 참가한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의 일본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5년 전에는 일본에서 참가한 사람은 3명—그때부터 일본의 아바타를 인도해 온 유지(Yuji), 토시히코(Toshiko) 그리고 저 3명 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Mr.박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스장 안에서 그 마음을 유지한테 전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올해 3월, 제가 교토(京都)에서 아바타 코스를 안내하고 있었을 때의 어느 한 순간이 다시 눈 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웅대하고 장엄한 지은원(智恩院; 2000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교토 마스터 코스장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 절터 안에서 '느끼기'를 했었을 때, 저는 Mr.박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절의 멋을, 아름다움을 그에게 꼭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일본에 오셔서 저를 도와 주셨는데, 제가 안내해 드린 곳은 너무나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호기심이 많으신 Mr.박은 일본에 대해서도 넘치는 흥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해 일본에 대해 많이 배우시고, 일본 사람보다 일본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그에게 저는 항상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본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가 된 지 얼마 안되 여유가 없던 저에게는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송함 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은원을 비롯하여 교토(古都)의 매력을 마음껏 맛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교토 마스터 코스에는 꼭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머리 속을 지나갔습니다. 'Mr.박은 2000년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제 몸이 갑자기 놀라움에 떨었고 목 안에서 뭔가 올라왔습니다. 마스터 코스를 즐기고 있는 일본인 학생들을 보면서 유지에게 "Mr.박이 여기에 지금 계셨으면..."하고 말했습니다. 교토에서의 인상깊은 일을 이야기한 직후, 건디지 못한 슬픔이 제 몸을 흔들어 코스장 안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5년 전부터 같이 일을 해 온 토시코가 보낸 e-mail을 보고 Mr.박이 그 전날(즉 제가 울던 그 때쯤)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일부러 헤어질 인사를 하러 오셨나 하는 생각이 드니 기쁨보다 슬픔이 커졌습니다.

아브라(Avra)가 이번 12월 마스터 코스를 Mr.박에게 바친다고 했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교토 마스터 코스를 Mr.박에게 올리는 코스로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아브라는 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Mr.박을 안만났으면, 이렇게 마스터로써 활동할 수 있었을지? 그리고 오늘날 일본 아바타의 활발한 현실이 일어났을지? Mr.박이 가신후 아바타를 아시아에서 번영시킨다는 높은 꿈과 사명은, 우리 속에 불로 켜지고 그 불은 이제 더욱 더 크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꿈을 나누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Mr.박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